

관광콘텐츠 개발 · 다양한 스토리텔링

군산시, '한국의 지방자치 경영대상' 국제문화관광 비전도시 부문 대상 수상 쾌거

군산시가 관광활성화를 위해 시도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스토리텔링 개발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2017 한국의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13일 문동신 군산시장(동아일보와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진행된 '2017 한국의 지방자치경영대상, 국제문화관광 비전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7 한국의 지방자치 경영대상'은 지방자치제도에서 지자체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발굴 선정해 널리 알리고 지방자치의 분권 실현과 그에 걸맞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군산시는 지난 2006년 민선 4기 시장으로 문동신 시장이 첫 취임하면서 50만 국제관광기행도시 군산건설이라는 시정목표를 세우고 '풍(豊)·화(和)·격(格)을 갖춘 명품도시' 구현을 통해 국제문화관광 도시로의 변화를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아 2017 한국의 지방자치경영대상 국제문화관광 비전도시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바다의 날' 행사를 비롯해 8월 세계여성 한민족네트워크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군산시가 가진 역량을 재확인하고 그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시간여행축제와 군산야행 등



13일 문동신 군산시장은 동아일보와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진행된 '2017 한국의 지방자치경영대상, 국제문화관광 비전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의 개발과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금석배 전국 축구대회 등 각종 스포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지난 10월 말 기준 300만 관광객 시대의 포문을 열어 국내 관광 1번지로 거듭나기 위한 군산시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동백대교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의

개통, 세계 최초 5개섬을 연결하는 인도의 설치 등을 통한 관광광역화 도모는 앞으로의 군산시 행보를 더욱 기대케 한다.

문 시장은 "그동안 군산시가 이룩해 온 성과들은 군산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30만 군산시민과 1,400여 명의 공직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낌없는 격려와 신뢰를 보내주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군산시가 품격 있는 관광도시로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새로운 군산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민선 6기의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산=김판곤 기자

월명공원 자연경관 보존 가능

군산시, 신흥동 월명공원 인근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대법원 상고심 승소

군산시가 신흥동 월명공원 인근에 내린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지역은 월명공원 주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인접토지로서 시에서는 건축법 규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월명공원 보존과 시민휴식공간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6년 2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토지주는 이에 불복하고 2016년 3월 8일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

기했으며, 2017년 2월 9일 열린 1심에 이어 2017년 8월 28일 2심판결에서도 군산시가 승소하자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일 대법원은 상고심 법리 검토 결과 군산시의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시 관계자는 "이로써 2년여 동안 진행해 온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사건을 대법원의 군산시 승소 판결로 논란을 종식시키고 시민의 편익공간 확충 및 월명공원의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캠페인

익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범용)는 13일 중앙동 전통시장(중앙매일, 서동)에서 지역 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집중 발굴과 맞춤형복지 홍보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맞춤형복지계 직원 등이 참여하여 중앙동 전통시장(중앙매일,서동)을 찾은 주민들에게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며 홍보물(파스, 물티슈 등)을 나누어 주었다.

홍보물을 받은 한 주민은 "자녀들을 찾아오지도 않고, 질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혹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도움을 요청해 현장에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다음날 바로 방

문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봉사단과 협력하여 동월기 3개월간 익산역 주변, 여인숙 등 숙박업소, 경로당, 지역내 개인 단체 및 업소, 종교 단체 등을 집중적으로 방문하여 노숙인, 홀몸어르신, 위기가구 등 소외 이웃들을 찾아내고 신속한 지원 및 연계 등을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천식 위원장은 "구도심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중앙동에 어려운 이웃이 많은 것 같다. 민관협력을 통해 한사람이라도 더 살피고 찾아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은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익산=정왕원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우수 진로체험기관 감사패 수상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가 지난 12일 익산교육지원청과 익산시청이 주최한 진로 및 자유학기 운영 동행나눔마당 행사에서 우수 진로체험기관 감사패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감사패는 이날 행사에서 익산교육지원청 류지득 교육장이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조석남 학장에게 직접 수여했다.

청소년들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 미래사회의 창조적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기여한 대학의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3D CAD 모델링 및 은 반지·은 목걸이 만들기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6개 학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년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논산시 청소년진로직업박람회와 익산교육 체험어울마당 등에 체험기관으로 참여해 많은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우수한 교육기부 진로체험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월 익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익산=정왕원 기자

군산시 수송동 주민자치센터 내년도 1분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군산시 수송동 주민자치센터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내년도 1분기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내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31개 프로그램에서 855명을 모집하며, 에어로빅, 요가 라인댄스, 댄스스포츠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10개반과 서예, 영어 노래 교실, 통기타 등 교양 취미 프로그램 21개반이 개설된다.

수강료는 3개월 기준 에어로빅이 6만 원, 그 외의 프로그램은 3만 3천원으로, 프로그램 신청자 편의를 위해 현장접수(79%)와 인터넷 접수(20%)가 병행 실시된다.

현장접수의 경우 접수 시작일인 15

에는 오전 8시부터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내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에서 실시되고 인터넷 접수는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시청 홈페이지 하단-읍면동 홈페이지-수송동)에서 오전 9시부터 실시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 수강료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수송동 주민자치센터(☎ 465-976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수자가 수송·미장·지곡동이 아닌 시민들은 12월 19일부터 접수가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대 나익균 총장 일행, 일본 아미구찌 대학 방문

한중일 3개국 총장 회의 국제대회 개막식 참석

군산대학교 나익균 총장이 14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아미구찌대학교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한중일 3개국 총장 회의 참석 및 창의적 공학 디자인대회 개막식 참석 등을 위한 것으로, 군산대학교 이성룡 기획처장 등이 동행한다.

나익균 총장 일행은 15일 한중일 3개국 총장 회의에 참석한 후 일본 아미구찌 대학에서 개최되는 창의적 공학 디자인 대회 및 혁신 응용 연구·교육에 관한 국제회의의 개막식에 참가할 예정이다.

창의적 공학 디자인 대회와 혁신 응용 연구·교육에 관한 국제회의는 한중일 3개국 대학이 공동 개최하는 대회로 한국의 군산대, 충북대, 이화여대, 인제대, 중국의 강소대, 후베이대, 상하이대, 충칭대, 일본의 아미구찌대, 규슈공대 등 3개국 10개 대학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13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다.

창의적 공학 디자인 대회는 3개국 학생을 대상으로, 혁신 응용 연구·교육에 관한 국제회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군산대학교에서는 이들 대회에 총 20명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군산=김판곤기자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ARS 1577-8179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